

'거실을 서재로' 추진본부 공동대표 김문순 조선일보 발행인
21세기 벽두 한국의 운명을
바꿀 대사건을 꿈꾸다



지난 3월 5일부터 조선일보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거실을 서재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독자들뿐 아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책 관련 기업들은 물론 일반기업들도 후원에 나서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서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실을 서재로’ 추진본부의 김문순 공동대표(조선일보 발행인)에게 ‘거실을 서재로’ 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보았다.

지난 3월에만 2만 3천여 가정이 ‘거실을 서재로’ 운동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독자들의 폭발적인 참여에는 남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캠페인 시작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넘는 가정이 ‘거실을 서재로’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예상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호응입니다. 이처럼 독자들의 뜨거운 참여가 있다는 것은 단지 무료로 책장과 책을 받겠다는 생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가족 문화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장은 지친 몸으로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 TV 리모콘부터 잡고, 아이들은 퇴근한 아빠를 본체만체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가정의 한 단면입니다.

신청 사연을 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조선일보가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책을 통해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고,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좀더 잘 키우고 싶다는 욕망에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불꽃을 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상적인’ 서재를 꿈꿉니다. 그런 점에서 거실을 서재로 꾸미자는 제안은 역발상의 지혜가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꾸민다는 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의 중산층은 대개 방 2~3개의 20~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 할 때 안방과 아이들에게 방을 내주면 남는 공간은 사실 거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실의 일반적인 모습은 커다란 TV가 놓여 있고 반대편에 긴 소파를 놓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 TV쪽만 바라봅니다. TV가 가족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반면 ‘거실을 서재로’에서는 가족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앉아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 서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며 창의성도 커집니다. 이 같은 가족문화의 변화는 가정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구성원들을 위한 창조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며, 나라 전체로 볼 때는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참여 비율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참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책보다는 TV와 인터넷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추진되는 독서운동이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해서도 큰 파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연들의 상당수가 아이들에게만큼은 독서하는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들은 TV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TV와 인



넷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정보, 때로는 유해한 정보가 이들 매체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쓰레기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들 영상매체는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를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됩니다.

그러나 책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자와 글자,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아이들은 무궁한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물론 책을 읽기만 한다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위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책을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 까닭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고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은 가족문화를 바꾸는 것은 물론 책 읽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월 730가정, 올 연말까지 7,300가정에 서재를 꾸며주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신청 추세라면 대상 가정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즐거운 상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본부의 생각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매월 730가구에 보급형 책장을 주고, 10가구에는 맞춤형 서재를 꾸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급형 7,300가구 맞춤형 1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도 있고, 현재 여러 기업들이 후원과 협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상 가정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내년 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첫 번째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 캠페인의 실제적인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서 열기를 연말까지 이어가는 것이며, 거실을 서재로 사업 이후 진정한 의미의 독서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판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범국민적 운동을 일으킨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서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21세기에 더 이상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실을 서재로'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거실을 서재로 바꿈으로써 책을 읽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뿐이지요. 이미 거실을 서재로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들게 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최종적인 형태의 독서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다양한 방법을 출판계와 도서관 관계자 등 여러 분들과 논의할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거기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참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조선일보에 입사 줄곧 경제부에서 일했다. 경제부장과 논설위원, 출판본부장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조선일보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2007년 2월부터는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 경제는 살아있다》 등이 있다.

책과 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종언을 고하는 메시지들이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과 공동 운명체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신문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이러한 독서 운동은 결국 신문매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신문은 활자매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영상매체가 '하이테크' (high-tech)라면, 활자매체는 '웜테크' (warm-tech)입니다. 하이테크는 차가운 매체인 반면, 웜테크는 따뜻한 매체입니다. 하이테크는 속도를 지향하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과 인간을 따뜻하게 연결하는 장점을 가진 웜테크인 활자매체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면,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도 가까이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가족문화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21세기 문화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운동에 함께 동참하려는 기업과 단체, 개인들도 많은 것은 보면, 우리 사회의 에너지가 이번 독서운동을 통해 폭넓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번 독서운동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파장과 영향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우리 사회의 에너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힘을 느낍니다.

이번 캠페인이 국민들의 놀라운 에너지를 받아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 저로서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은 단순히 거실의 공간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21세기 벽두 한국의 문명을 바꾼 대사건으로 훗날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독서운동의 최대 파트너인 출판계와 지근거리에서 교류하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으로 출판계에 대해 나누어주시길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은 조선일보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박맹호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뜨거운 호응과 파트너십 그리고 공동보조가 있기에 더욱 번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의 힘만으로는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전체 출판계와 온 국민이 동참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출판계는 출판계대로, 힘을 합치고 정성을 모아 정말 제대로 된 독서문화, 따뜻한 대화가 넘치는 가족문화, 창의성과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펄펄 살아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21세기 지식강국으로 만든 데 나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